

GS칼텍스, 무교섭·무분규 임금협상

노조, 6년연속 회사에 위임 ... No.3 중질유분해시설 포함 신사업 위해

GS칼텍스(대표 허동수) 노사가 6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약 위임에 합의함으로써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7월14일 오후 여수공장 임원회의실에서 전상호 여수공장 사장과 김국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임금협약 위임식을 가졌다.

노사는 No.3 중질유분해시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과 신 성장사업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gp 6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약 위임에 합의했다.

김국진 노조위원장은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 및 미래 가교 역할을 수행할 No.3 중질유분해시설의 성공적 가동을 위해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전상호 사장은 “노조가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을 통한 회사 경쟁력 제고 및 신 성장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6년째 임금교섭을 위임한데 대해 감사하다”며 “노사가 무사고·무재해를 바탕으로 경영목표인 Bridge to the Future(미래를 향한 가교)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5>